

문서세단기로 미래를 꿈꾼다

(주)대진코스탈... 강태욱 회장

“기계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소비자에게 멋진 발명가가 되는 것이 진짜 발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노력의 땀방울, 그것이 훗날 발명가다운 발명가를 탄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한 우물만을 파고, 현재 국내최고의 문서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의 신화를 이루고 있는 (주)대진코스탈 강태욱 회장을 만나보자.

사 램마다 살아온 과정, 스토리가 복잡하다. 하지만 행복을 꿈꾸는 모습은 대부분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문서세단기를 통해 행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주)대진코스탈 강태욱 회장.

그는 지난 1974년 국내 최초로 ‘윤전등사기’를 개발해 내무부, 국방부, 농협중앙회에 행정장비로 납품하는 등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기업의 기반을 다졌다.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 디딘 일은 사무기기 관련 회사. 기술, 장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윤전등사기’라는 획기적인 자동등사프린트 기계를 발명하게 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황무지 같은 여건 속에서 발명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윤전등사기’로 1983년 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고, 이를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강 회장을 문서세단기 분야에 뛰어들게 한 이유이다. 당시 문서세단기라는 이름도 생소했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던 때였지만, 이 제품이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고 강 회장은 토로했다.

그는 처음부터 발명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기계를 만들고,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보안 전문회사 「(주)대진코스탈 - 문서세단기」



개인 및 기업의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서세단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1984년, 문서세단기는 조달청을 위한 정부기관 및 군, 금융기관, 언론기관, 대기업 등에 납품되어 최고의 품질

과 우수한 사후관리를 인정받아 현재는 국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한 최고의 문서세단기 전문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 납품업체 가운데 계속해서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자랑이다.

(주)대진코스탈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달리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33년간 일품주의로 문서세단기만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산신기술(KT 제250호, 제1333호(현, NeT)) 마크(문서세단기의 핵심인 세단기 칼날에 대해서)를 획득하였고, 99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85년 동탑산업훈장, '05년 은탑산업훈장을 위시한 각종 인증 및 포상을 수여 받았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러시아 등 선진국에서도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 다양해진 문서보안 요구에 따라 소형 문서세단기에서 사무실용, 산업용 세단기를 개발·제조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다중세단방식의 고속, 고용량, 고보안성 문서세단시스템을 개발·판매하였으며, 이동 문서 파쇄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여 종합 문서보안 솔루션회사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화된 A/S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서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문서세단기의 A/S 서비스

(주)대진코스탈의 A/S 서비스 방식은 체계적이고 정밀하다. 직원들은 A/S 교육을 수료 후, 3급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 경험을 쌓은 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등급을 높인다.



소비자로부터 제품이상 연락이 오면, 직원은 즉각적으로 제품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연구소로 보내, 분석이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부주의라면 재교육을 시켜주겠지만,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시, 대진코스탈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생산에는 실명화(바코드 시스템)가 되어 있어 분야마다 누가 조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결함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회장님의 발명노하우

나의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나와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웃음)

발명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발명을 했으면 어떻게든 사업화할 수 있어야 해요. 그저 자신의 발명품을 보듬어 안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50년 전에 제가 발명교실에서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나라 영어방식이 잘못되었

다는 거였어요. 한 마디로 죽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문장을 달달 외우고 문학을 해석하면서라도 말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영문학을 전공해도 외국 사람 앞에선 꼴 먹은



이동 파쇄 서비스

병어리가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교육방식이 많이 좋아져서 다들 잘 하지만요.(웃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은 발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허청에 부담만 안겨 줄 뿐이죠. 쓰지도 못하는 발명을 수백 명이 관리하는 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리고 특허를 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생각도 버려야 해요. 아무리 좋은 특허도 그걸 사업화해서 소비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를 하더라도 아무런 개선 없이 제품만 생산해서는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제품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끊임없이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합니다. 늘 도전하는 마음만 있으면 훗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웃음)

수상경력

- 1983. 3: 성실납세자로 재무부장관표창(국세청)
- 1983. 9: "83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특상수상(특허청)(WPO: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 1985. 5: "제20회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 1986. 11: '86년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 장려상(특허청)
- 1992. 12: '92년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금상 수상(특허청)
- 1996. 3: 성실납세자로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표창(재정경제원)
- 1997. 4: 제30회 과학의 날 과학기술처장관상 수상(과학기술처)
- 1998. 6: 중소기업인상 수상(부평구청장)
- 2001. 3: 성실납세자로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표창(재정경제부)
- 2001. 5: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은상 수상(특허청)
- 2001. 7: 한국일보주최 2001 베스트신상품(문서세단기)
- 2001. 11: 제8회 신지식 특허인 선정(특허청장)
- 2001. 12: 2001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문서세단기 금상 수상(산업자원부)
- 2002. 3: 문서세단기 으뜸상품 선정(한국표준협회)
- 2002. 5: "제37회 발명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 2003. 7: 2003년 우수상품디자인(GD)상품 선정, 조달청장상 수상(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2003. 12: 국산신기술(KT) 실용화 유공기업으로 대통령표창(과학기술부)
- 2004. 7: 문서세단기 우수제품 선정(7305외 10종)(조달청장)
- 2005. 1: 문서세단기 행정용품 선정 - 조달청 중앙보급창
- 2005. 5: 모범연수업체 선정 - 제 2005-442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2005. 8: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제 2005-8호(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2005. 12: '05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문서세단기 은상(특허청장)
- 2005. 12: '05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문서세단기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
- 2006. 2: 조달행정 공로 조달청장상 수상(조달청 제3108호)
- 2007. 7: 유망중소기업 선정(인천광역시)
- 2007. 9: 정보화 기업인 수상(정통부)



발명특허 2008. 5

취재 _ 김민국 주임(혁신기획팀)